



서민금융상품 연체율 상승

채원영 연구원

■ 최근 미소금융¹⁾ 및 새희망홀씨²⁾의 연체율과 햇살론³⁾ 및 바뀔드림론⁴⁾의 대위변제율⁵⁾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.

- 서민금융상품의 수요층은 주로 저신용·저소득층으로 보유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높은 특성이 있으나 2012년 9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0.92%⁶⁾인 점을 감안하면 2.6%~9.6%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.
- 또한 최근 실물경기둔화, 가계부채 규모 증가 등으로 연체율(대위변제율)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.

〈표 1〉 서민금융상품 연체율 현황

구분 (사업 개시월)	연체율(%)				
	'10. 12	'11. 6	'11. 12	'12. 6	'12. 9
미소금융 (08. 7)	1.6	2.5	3.1	4.4	5.2
햇살론 ¹⁾ (10. 7)	0.03	1.7	4.8	8.4	9.6
새희망홀씨 (10. 11)	—	1.2	1.7	2.4	2.6
바뀔드림론 ¹⁾ (08. 12)	5.1	4.9	5.9	7.1	8.5

주: 1) 대위변제율.
자료: 금융위원회.

- 1) 저신용·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소금융재단에서 2~4.5%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.
- 2) 은행권 자체재원을 통해 11~14%로 대출하는 상품.
- 3)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서민금융회사(상호금융, 상호저축은행 등)에서 9~12%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.
- 4) 20% 이상 고금리 대출을 신복기금의 100% 보증을 통해 8~12% 수준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.
- 5) 금융회사가 자금을 대출해준 뒤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제공 기관이 보증을 선 자금에 대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.
- 6)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,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.

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.

- 금융위원회는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햇살론의 보증심사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.
 - 햇살론과 바퀴드림론의 경우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대출이므로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.
- 새희망홀씨와 미소금융에 대해서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할 계획임.

(서민금융 지원성과 및 향후 계획, 금융위원회, 11/15)